# ‘입장’으로 살펴본 〈더 테러 라이브〉

※ 이하 모든 사진의 출처는 ‘더 테러 라이브 홈페이지’(www.theterrorlive.kr)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이런 단호한 말에 상처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차마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단연코 내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느끼곤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섬에 머물며 그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다. 가만있어도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막는다. 집이든, 일터든, 혹은 법정이나, 하다못해 운전 중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파하고 몸부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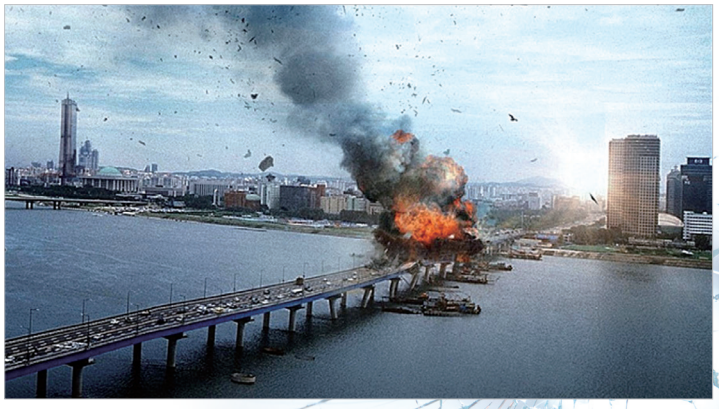
너와 나 사이에서 맑은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는 정녕 없을까? 법률가가 본 영화 그 네 번째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입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만 놓고 보면 ‘테러 생중계’ 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공공의 적이 되고,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려고 혈안이 되고, 시민을 보호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입장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나는 영원히 네가

될 수 없는 건지' 영화 속에서 살펴보자.

교통정체가 서서히 풀려가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전, 교통방송이 흘러나온다. 대통령이 국회로 갈 예정이어서 여의도로 통하는 길의 정체가 예상된다. 대통령이나 여의도의 교통정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SNC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윤영화(하정우 분)는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때 한 청취자, 박노규의 전화가 걸려오고 윤영화는 그의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를 무시한다. 화난 박노규는 한강의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은 사실이 되어 마포대교의 일부 상판이 무너진다.

"지금 이거 테러예요. 내 일생일대의 기회 같아."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사건이 한 방송국 직원에게는 출세의 기회가 된다. 윤영화에게 테러와 그 중계는 개인적으로는 밀려났던 TV앵커 자리로 돌아가고 이혼한 아내와 다시 결합할 기회다. 윤영화는 보도국장 차대은에게 자신이 테러범에게서 협박을 받은 사실과 상황을 전하면서 마감뉴스 복귀에 관한 협상을 한다. 단박에 누추한 라디오 진행자 윤영화는 TV 진행자로 깔끔하게 변신을 한다. 방송국에게는 시청률을 높일 절호의 찬스다. 시청률을 위해 차대은 국장과 방송국은 테러범이 요구한 거액의 돈을 건네준다.



테러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윤영화가 국가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고 테러를 생방송하기로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언론기관이라도 꼭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내용을 공표할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를 생방송하는 것은 어떨까? 실제 테러가 생중계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9.11 테러 장면과 이라크에서 희생된 김선일 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아야했다. 테러를 생중계한다는 것이 익숙해진 현실이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언론이 인간의 존엄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지, 언론 스스로 보도를 통해 테러를 양산하지는 않는지 우려 내지 의심되는 면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 권리다.

테러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언론기관이 보도하고 싶어 하는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보도할 때는 방송보다 먼저 사람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문제되었던 성재기 씨 자살 장면 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는 언론기관이 테러 생방송을 위해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돈을 건네준다. 더 나아가 테러범을 자극하여 추가적 테러를 하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언론의 상업성과 선정성이 극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꼬집는다.

이를테면 영화 속에서 테러범에 의해 끊어진 마포대교의 상판위에는 테러범과는 아무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갇혀있다. 테러범은 이들을 구조하려고만 해도 재차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다. 테러의 전과정이 생방송되는 상황에서 인질이 된 시민들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다.

그런데 방송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대은 국장은 '인질이 죽어야 테러가 끝이 난다'고 말한다. 테러범도 그들이 끝내 죽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연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 생명이 방송사의 시청률을 올리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서도 용납할 수 없는 언론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적 의무를 위반하고, 테러행위의 교사내지 간접정범에 해당할 범죄행위이다. 이런 언론기관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 테러범을 보자. 그는 마포대교에 폭탄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폭탄을 여러 곳에 설치한 것은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하고, 다리를 폭파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그로 인한 치사상의 죄를 저질렀다. 그 외 상해죄와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죄가 경합되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입장을 보자. 테러범은 마포대교 보수공사 도중 몇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과 그에 대하여 국가는 보상은커녕 아무런 사과도 없었음을 이

야기한다. 이에 자신은 세간의 시선 끌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포대교를 폭파하였음을 밝힌다. 여기에서 테러범은 사실 마포대교 보수 공사 중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의 아들이다. 아버지 행세를 하며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청년은 테러범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테러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와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더란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사과'다. 테러의 동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테러범의 요구 역시 큰 무리가 없는 듯해도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연유에서건 그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준엄한 현실에서 그 누군가가 그의 입장이 되지 않는 한 그를 이해하기도 대변하기도 어렵다.

그럼 테러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그깟 대통령의 사과, 해주면 그만 아닌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테러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에 처벌이 따르는 것은 국가권력과 법의 역할이다. 국가의 최고통치자의 사과는 테러라는 범죄행위에 굴복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와의 타협은 장기적으로 보면 테러의 반복을 부를 수 있다.

테러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포스러운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엄연히 불법이다. 불법은 법질서 안에서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위이다. 테러범은 불법을 빌미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입장의 시민들은 너도나도 테러범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는 안위를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소명이 있다. 그러므로 테러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권력의 입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대통령 대신 등장하여 테러에 대한 국가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경찰청장은 생방송 중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희생된다.

그럼 영화 속에서 경찰청장이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희생되면서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모습은 정당한가? 법질서

의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 테러범에게 김선일 씨를 잃었다. 단 하나의 생명도 국가정책이나 입장 보다 우선했으면 하는 바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다. 또한 나라의 커다란 일에 가려진 민생과 억울한 시민들의 일들을 헤아려 주는 것이 국가적 모욕일 수만은 없다.

법은 그 공감대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영화에서처럼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는 협상팀을 만들어 현장에 급파하여 후발 사태를 막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국민적 신망은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테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률은 국회로 간 뒤 길을 잃었다. 테러 관련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국가권력을 좀 더 삐딱하게 보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에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사과를 유도하는 앵커 윤영화의 비리를 폭로하여 국민 여론을 희석시키려한다. 더 나아가 테러범을 무참히 사살하고 상황을 목격한 윤영화에 대해서도 사살명령을 내린다. '권력의 수뇌부에는 음모와 권력의 암투가 있으리라.' 일반인의 상상에 머물 권력의 속성을 미루어 짐작하여 본다. 영화는 또 상상이 주된 영역이니 이를 두고 '뭐 이렇기까지야 하겠느냐' 반박할 생각은 없다.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영화의 개인비리를 보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윤영화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언론의 자유나 기타 국가의 공공이익과는 무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윤영화와 싸우다가 빌딩 밖으로 떨어진 테러범을 사살한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범죄자이니 죽여도 좋을까?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총기를 사용하거나 저항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체포가 우선이다. 그에게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빌딩 밖으로 떨어져 윤영화의 손을 잡고 있는 테러범을 저격한 것은 살인죄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다시 윤영화를 보자. 주인공 윤영화역의 배우 하정우는 혼자 영화 전체를 이끌다시피 한다. 출연자도 많지 않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는 긴장 속에서 빠르게 전개된다. 영화 속 윤영화는 처음 어눌한 시민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그에게는 다시 온 출세의 기회만이 보였다.

하지만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그는 테러범의 입장이 되어간다. 전처 이지수 기자가 마포대교 상판에 갇혀있을 때와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상판 위의 그녀

가 죽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테러범이 사살되었을 때 그는 서서히 테러범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떨어진 사살 명령에 그는 테러범이 되어 폭탄의 버튼을 누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국 건물은 국회의사당으로 넘어진다. 거기에서는 이 테러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테러는 어떤 얼굴일까? 1988년도였을까? 내 기억 속에 TV로 본 공포스런 실제상황은 인질극을 벌이는 탈옥수 지강헌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하며 인질극을 벌이던 그는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때 TV는 수없이 인질극 장면을 반복했다. 자극적인 고통의 기억이다. 두려움과 소름끼치는 공포의 기억은 나이 들어서도 반복되었다. 일본의 지하철역에서는 사린이라는 독가스가 살포되었고, 아랍권의 자살테러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도 테러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한지는 오래되었다. 민방위 훈련에 테러대비 훈련이 추가되고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이 지하철에 공시되기도 했다. 그래도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까? 방송과 시민과 국가권력은 어떻게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까?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위한 명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테러의 도전은 명분의 도전이다. 어찌보면 두고두고 지강헌과 같은 이들이 그저 씁쓸한 사건정도로 기억될 것인지,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억과 기대와 실망을 버무려 영화로 올렸다. 여기에 방송이라는 데코레이션은 화려하고도 자극적 요소이지만 자칫 필요악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테러에 관해 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기어이 네가 되지 않고는 너를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의견이나 억울함이 상부까지 잘 전달되는 통로가 잘 된 나라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지고 테러 위협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생각해 본다.